

# 광주·전남 평균 9억...10명 중 7명 재산 늘어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보니...

## 강운태 시장 40억 전국 광역단체장 중 1위 배용태 부지사 7억 늘어 120억 '최고 부자'

광주·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9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2012년 12월31일 기준) 명세를 공개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 대상자 121명 중 83명(68.6%)의 재산이 증가했다. 광주는 대상자 33명 중 24명이, 전남은 88중 59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대상자 재산 총액은 1095억원이며, 평균 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종식 서구청장 구청장 중 1위=광주시 공개대상자 33명의 평균 재산액은 8억1000여만원이었으며, 평균 증가액은 6911만원이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39억 9267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도 1위였다. 다만, 전체 재산은 전년대비 28만원이 줄었다.

광주지역 구청장 중에서는 김종식 서구청장이 30억330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이 17억245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의원 중에는 진선기 시의원 20억7794만원, 임동호 교육의원 17억9289만원 순이었다. 총 9명이 10억대를 넘어선 재산가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액은 정현애 시의원이 5억2402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송광운 북구청장 4억 5361만원, 김종식 서구청장 2억 1875만원, 나종천 시의원 2억142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만 10명

이었다.

◇기초단체장 중 최고 재력가는 임성훈 나주시장은 박준영 전남지사는 재산총액이 22억8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늘었다.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2003명 가운데 4위를 기록한 배용태 행정부지사는 119억8000만원으로 7억여원이 증가했다.

전남도내 21개(화순군 제외)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고 재력가는 임성훈 나주시장으로 73억8800만원이었다. 이어 김종석 여주시장 38억여원, 김종식 완도군수 30억 700만원, 조중훈 순천시장 26억여원으로 30억대와 20억대 재력가 이름을 올렸다. 21명 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14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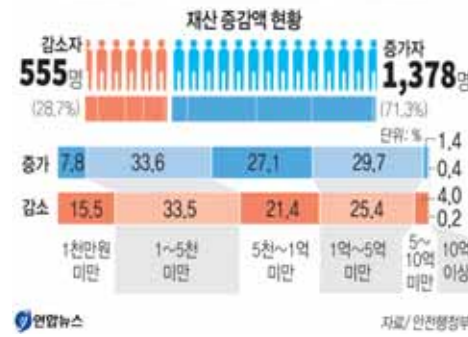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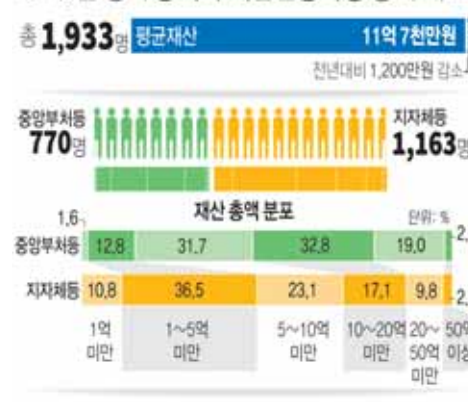
도의원 가운데 최고 재력가는 72억4900만원을 신고한 임명규(보성)의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4억6100만원이 늘었다. 명현관(해남)의원이 54억1600만원(+3억 5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특히 명 의원의 재산 가운데 예금이 90%가량인 48억원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장위국 늘고, 장만채는 줄고=장위국 시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은 4억5759만원으로 전년도 3억6825만원보다 8934만원이 증가했다. 장위국 교육감의 재산은 본인 소유 광주 아파트 가격 상승, 봉급 저축, 배우자 연금 저축, 임대보증금 저축, 주식매도 및 저축, 자녀 봉급 저축 등으로 증가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4억6582만원으로 전년도 4억7845만원 보다 1263만원 감소했다.

◇광주 기초의원 10명 1억원 이상 증가=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광주 기초의원은 채명희(동구), 강민택(서구), 강원호·심병희·최민순(이상 남구), 문혜옥·심재섭·최기영(이상 북구), 김동호·김선미(이상 광산구) 의원 등 10명이다. 기초의원 중 최민순(48억여원), 차경섭(34억여원), 채명희(31억여원), 심재섭(20억여원), 강원호(15억여원), 이병관(서구·13억여원), 문혜옥(11억여원), 최기영(10억여원), 박준수(남구·10억여원) 등 9명은 재산이 10억원을 넘었다.

/박진표기자jucky@kwangju.co.kr

### 2013년 정기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국회의원 재산총액 순위

순위	재산총액
1	정몽준 새누리당 1조9천249억원
2	고희선 새누리당 1천984억
3	김세연 새누리당 880억
4	박영호 새누리당 530억
5	현영희 무소속 198억
6	윤상현 새누리당 170억
7	강석호 새누리당 140억
8	정의화 새누리당 124억
9	심윤조 새누리당 98억
10	정몽준 새누리당 86억

###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대비 일반가구 순자산 비교



## 불황 비웃는 국회의원들 72%가 재산 증가

### 지역 의원들 장병완 80억 1위·주승용 48억 2위

지난해 경제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9일 공개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의원 296명(의원직 상실자 3명 및 비례대표 승계자 1명 제외) 중 71.6%인 212명의 재산이 늘었다. 이 같은 재산 증가 의원 비율은 2011년 49.8%(293명 중 146명)에 비해 21.8%포인트나 증가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 처음 입성 또는 재입성한 신규 등록 의원 180명은 지난해 5월말 재산신고 이후 7개월간의 변동 내역이 대상이 됐다.

전체 의원 평균 재산은 500억원 이상 자산가로 '톱4'인 새누리당 정몽준(1조9249억원)·고희선(1984억원)·김세연(880억원)·박영호(530억원) 의원 등 4명을 제외하면 1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야 재력차 확인>=새누리당 의원 151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9180만원(500억원 이상 재산 제외)으로, 민주당 의원 127명의 평균 재산 13억2472만원에 비해 2배에 가까웠다. 정몽준 의원을 포함해 500억원 이상의 재력가 4명을 포함할 경우 새누리당 의원의 평균 재산은 173억241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산총액 상위 10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이 휩쓸었다. 5위인 무소속 현영희 의원도 총선 공천헌금 과문으로 제명되기 전까지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의 최고 재력가는 장병완 의원으로 79억8312만원을 신고했다. 신장용(74억6086만원)·이상직(51억8265만원)·주승용(48억 3770만원)·김한길(41억2830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장병완·주승용 의원에 이어 임내현(31억2531만원)·황주홍(23억 5208만원)·우윤근(22억723만원)·박주선(21억9752만원)

의원이 상위에 올랐다.

김승남(29억9557만원)·김선동(7945만원)·오병윤(1731만원) 의원은 19명의 지역 국회의원의 중 17~19위를 기록했다.

전체 20억6276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박해자 의원은 지난해 5월말 이후 2억4824만원의 재산이 늘어 19명 중 재산 증가 1위를 차지했다. 교수 퇴직금을 받은 때문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반면 이용섭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19명 중 가장 많은 1억4416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

◇1억 이상 재산 불린 의원 106명=지난해 서민 경제에는 한파가 몰아쳤지만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의원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106명에 달했다. 국회 '재력가' 2위를 차지한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의 재산증가폭이 718억3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농우바이오의 주식 평가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 이재영·장윤석 의원, 민주당 이학평 의원도 1년 사

###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 (가나다 순, 단위:천원)

이름	신고액	증감액
강기정	619,444	54,297 ▲
김동철	1,925,092	42,194 ▲
김선동	79,448	21,944 ▲
김성곤	628,918	122,750 ▲
김승남	295,573	13,437 ▲
김영록	950,556	194,340 ▲
박주선	2,197,522	122,841 ▲
박지현	1,474,296	29,857 ▲
박해자	2,062,759	248,236 ▲
배기운	690,783	3,857 ▲
오병윤	17,312	2,317 ▲
우윤근	2,207,228	73,103 ▼
이낙연	1,295,785	91,854 ▼
이용섭	1,327,919	144,157 ▼
이윤석	826,080	25,578 ▼
임내현	3,125,314	138,753 ▼
장병완	7,983,120	80,068 ▲
주승용	4,837,709	148,110 ▲
황주홍	2,352,083	69,467 ▲

이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번 공개에서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42명,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5명, 진보정의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등이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 고위공직자 재산 일반 가계의 5배

### 평균 13억2092만원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이 일반가계 순자산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소득 하위 20% 가계 순자산에 비해서는 15배에 달했다.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작년 말 현재 입법·사법·행정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전체 공개 대상 2387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2092만원이다.

이는 작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 2억 6203만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다.

고위 공직자의 평균재산은 같은 조사에서 집계된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 8917만원에 비해서는 15배에 달했다. 고위공직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국회의원 206명(의원직

상실자 3명 및 비례대표 승계자 1명 제외)의 평균재산은 18억 6800만원으로 일반가계 순자산의 7배, 소득 하위 20% 가계 순자산의 21배나 됐다.

중앙부처 고급 고위공무원 이상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 1933명의 평균재산(11억7000만원)은 일반가계 순자산의 4.5배, 소득 하위 20% 가구 순자산의 13배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7명의 평균재산은 21억997만원으로 일반가계 순자산의 8배, 소득하위 20%가계 순자산의 24배였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는 "고위공직자가 일반가계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황속 고위공직자 72%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공직자로서 정보나 지위를 재산 증식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그러니 지지율이 오를 턱이 없지

QR code and text: 지역 창업지원의 거점, 전주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Includes logo for Changup University.

2013년 전주대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참가자 모집. Includes details about the program, application period (3.27 ~ 4.17), and contact information.